

하우스 디바이드



**윤우중의
잠시 심포**

지금 남과 북은 타의에 의해 서로 갈라진 70여년의 틈을 메우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에 상관 없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다짐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안에선 틈이 생기고, 이 틈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얘기다. 요즘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부동산 얘기만 한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넘쳐 보이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웬지 모를 불안과 초조함을 호소한다. 집의 소유 여부로 계층이 갈리는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다.

일반 월급쟁이들이 일년에 기껏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몇백만원에서 많아봐야 수천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당장 생계를 꾸려야 하고 아이들 학비 등에 돈을 쓰다 보면 일년에 몇천만원 저축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집값 뛰는 걸 보면 며칠 사이에도 몇천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몇억원씩 오른다. 열심히 돈 모아서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이 무참히 깨진

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저 있는 집이 본인의 노력과 관계 없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뛰는 걸 보면 집 없는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우스 디바이드는 사회갈등도 유발한다. 한 지인은 이번 추석에 일가친척들이 만나면 분명히 집문제로 언짢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기도 한다.

하우스디바이드는 사회갈등뿐 아니라 지역갈등도 유발한다. 집값 상승이 특정 지역,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박탈감도 심하다. 일부에선 지역 유지들이 돈뭉치를 싸들고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더군다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택지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시중 자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에 몰리는 것도 이유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 투자수익이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도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

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국토부는 거래규제와 대출제한 등으로 수요를 누르고 있는데 서울시가 난대없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있다.

문제는 이런 집값상승이 우리 산업 발전에, 우리 경제순환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시중 자금이 4차 산업혁명이나 신성장동력 발굴, 신규시장 개척 등에 투자돼야 돈이 제대로 돌고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데, 부동산 신규개발도 아니고 지금 있는 집의 가격만 오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저 있는 집에 어떤 부가가치도 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수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거품이 된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다. 거품이 꺼지면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

정부가 21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여덟번째 정책이다. 일부에선 9·13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21일 발표되는 공급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는 하우스 디바이드를 끝내길 기대해본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주식,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라



**기지 수첩
손 엄 지
(파이낸스&마켓부)**

JYP 주가가 3만6000원을 넘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전 주가는 9000원 수준. 불과 1년 새 4배가 올랐다. JYP 주식 100주를 보유해온 주주라면 1년 전 90만원이 360만원이 된 셈이다.

JYP 투자에 성공한 주주 중 트와이스 팬을 자칭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JYP 주식을 사게 된 이유도 트와이스가 좋아서라고. 그들은 진정한 '성덕(성공한 덕후)'이라 불릴만 하다.

이재원 한국투자밸류 대표 역시 성덕

이다. 지난 5월 31일 공시된 바에 따르면 한국투자밸류가 보유한 JYP 지분은 8.42%다. 지난해 JYP 주가가 6000원일 때부터 꾸준히 매수해온 결과다. 지난해 JYP 주가가 1년 새 150% 오르면서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정리할 때도 한국투자밸류는 추가매수를 선택했다.

물론 이 대표가 JYP 주식을 사들인 이유는 단순히 '트와이스가 좋아서'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엔터테인먼트 덕후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일본 유학 중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광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고 파급력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직캠을 보여주며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며 감탄했다. 일

본에서 트와이스의 인기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JYP주식은 더 갈거라고 예견했다. 그 후 JYP 주식은 4배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식투자는 단순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을 사면 된다. 시장에 먹히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곧 성장성 있는 기업이자,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존리 메리트자산운용 대표도 말했다. 보톡스 맛을 생각하지 말고, 메디톡스 주식을 사라고. 이후 지금까지 메디톡스 주가는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때 보톡스 대신 메디톡스 주식을 사다면 보톡스 열 번은 더 맛을 수 있는 돈이 생겼을 것이다.

/sonumji301@

인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전보 △기반시설국 녹색에너지환경과장 정경희
- ◆경북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도우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 ◆평택시 □4급 △상하수도 사업소장 서종철 △총무국장 정승채 □5급 △총무과장 남성진 △기

회계산과장 최윤수

부음

- ▲유태분씨 별세, 장인화(동일철강 회장)씨 모친상 = 18일 오후, 부산시민장례식장 1층 MVG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51-636-4444
- ▲이신자씨 별세, 최훈성·성호·영미씨 모친상, 엄광섭(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씨 장모상 = 18일, 대전한국병원 장례식장 동백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42-638-4440
- ▲박남수씨 별세, 김중진(전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총보팀장)씨 모친상 = 19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031-337-3100
- ▲전해선씨 별세, 배병길(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반장)·배외수·배태순·배병용(국민은행 부장)·배병호씨 모친상 = 19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1일 오전 7시 ☎053-627-4444

신세계그룹

소외계층·어린이들에 추석맞이 선물 전달

신세계그룹이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 이번 선물 전달을 위한 후원금은 총 3억원 규모이며, 총 3000명의 어린이에게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누리상품권을 1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희망배달캠페인 기금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회사 매칭 기금이 더해진 것이다 더 의미가 깊다.

선물을 전달받을 어린이 선정과 선물 전달은 추석 명절 전까지 어린이재단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



KRX국민행복재단-부산시, 어린이 놀이터 조성 협약식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은 1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청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RX국민행복재단은 올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후원해 부산 소재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포장공사 및 놀이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관련 인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KRX



LG이노텍, 8개 사업장서 송편나눔 봉사활동 LG이노텍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국내 8개 사업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송편나눔' 릴레이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이웃사랑 송편나눔은 서울 본사와 마곡, 파주, 안산, 평택, 청주, 구미, 광주 등 전국 8개 사업장에서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총 3000여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 송편을 선물했다. /LG이노텍



KB증권, 소외이웃에 사랑나눔 활동 KB증권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객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情)든든 KB박스'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독거 어르신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까지 수혜계층을 넓혀 보다 많은 소외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KB증권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양천구 일대에서 진행된 '정(情)든든 KB박스' 전달행사서 고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롯데하이마트, 가전유통업계 최초 부패방지 국제표준 인증 획득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가전유통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을 취득했다. 19일 서울시 대치동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에서 열린 'ISO37001' 인증식에서 롯데하이마트 김현철 상품본부장(사진 왼쪽부터),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대표, 롯데하이마트 장대중 영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봉사활동 19일 호텔신라는 제주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 주인들과 함께 서귀포시에 있는 대표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과 독거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갈비탕, 즉석 비비규 등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맛있는 밥상' 봉사활동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상필 제주도의원, 하주호 호텔신라 전무, 오상훈 제주신라호텔 총지배인 등도 함께 참석해 배식과 복지관 인근 환경 정화 활동을 도왔다. /호텔신라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49호